

10) 태권도

태권도는 해방 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보급, 발전되었다. 이런 발전에 따라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조직되어 1962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가맹되었고,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35년경 손정삼이 순천에 이주하여 저전동에 순천침술원을 운영하면서 후진들에게 십팔기(고신술) 중 검술·중신술·경신술·호신술 등을 지도하였다. 조휘종·허준수·서태현·서무현·진봉수·이중휘·김수관 등이 그의 제자로 배출되어 지금까지 전남 동부권에서 지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진봉수는 십팔기운동을 계속하다가 1958년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태권도교육을 이수하고 공인 8단을 획득한 후 귀향하여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순천협회는 1968년 진봉수(현 순천의료보협조합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순천시내 초창기 도장은 지도관·청도관·상무관·무덕관 등이다. 1968년 3월 진봉수 사범은 동외동에 순천종합체육관을 세워 태권도·권투·유도 등에 사범을 두고 동부권의 태권도발전에 주력하였다.

운영현은 청도관을 운영하여 김순식·임병중·장영인·이형수·김봉섭 등을 지도하였으며, 김순식은 청도관(매곡동 삼산중학교 입구 소재)을 운영하다 후진에게 인계한 후 현재는 목포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장영인은 1966년 제47회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출전하였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1968년 제49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현재는 순천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영채는 1980년까지 매곡동에서 운동을 하였으며, 장호는 1970~1975년까지 중앙동에서 무덕관을 운영하였다.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에서는 이 고장 종합체육관 출신 김병철(혜비급)이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현재 별량중·서면중·남산중·이수중·순천공고 등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어 훈련하고 있다.